한국 '태극기'와 송대 유학자 소옹의 선천역학의 비교연구*

뢰 귀 삼**

1. 서론
2. 조선조의 태극사상과 「선천도」에 관한 관심
3. 한국 태극기의 역리연구
4. 소옹의 선천역학 연구와 약술
1) 도(圖)와 수(數)
2) 『황극경세』와 그 역학사상
3) 태극의 세 가지 원리
5. 결 론

초록: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의 제작과정과 그 속에 담긴 역학사상의 연원을 연구한 것이다. 태극기의 흰색바탕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순결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앙의 원은 역학에서 우주와 진리를 상징하는 태극(太極)이다. 태극의 원은 인민을 나타낸다. 중앙의 붉은색과 파란색은 태극의 양의인 음과 양을 뜻한다. 태극문양은 우주의 혼성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상징한다. 네 모퉁이의 건(乾)·곤(坤)·이(離)·감(坎)은 복희의 선천팔괘 중 네 가지 정괘(正卦)이고, 천(天)·지(地)·일(日)·월(月)을 상징한다. 감과 이는 물과 불, 남과 여, 정(靜)과 동(動)의 융합과 화해를 나타낸다. 이는 모두 대칭(對稱), 균형(均衡), 화해(和諧), 순환(循環), 온정(穩定)과 같은 원리뿐만 아니라 정의(正義), 부요(富饒), 생명력(生命力), 지혜(智慧) 또한 상징한다. 태극기의 '태극'과 '선천사정괘(先天四正卦)'는 진정 복희(伏羲)의 '선천팔괘(先天八卦)'사상을 반영한 것이고, 한민족의 우주와 인생에 관한 핵심적인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복희의 선천팔괘는 소옹의 선천역학설, 즉 '변화가 일어나기 전인 인

* 이 논문은 201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연구기금으로 작성된 것이다.
** 국립대만사범대학 국문학과 교수(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객원교수).

심(人心)의 무형(無形)·무사(無事)한 단계에서 천의(天意)를 파악하여 실천하는 것을 중시하는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고는 태극기의 역리(易理)와 소옹(邵雍, 1011~1077)의 선천역학을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힐 것이다.

핵심어: 태극기(太極旗), 선천팔괘(先天八卦), 복희(伏羲), 선천역학(先天易學), 소옹(邵雍)

1. 서 론

이 논문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太極旗)의 제작과정과 그 속에 담긴 역학 사상의 연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태극기의 흰색바탕은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순결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앙의 원은 역학에서 우주와 진리를 상징하는 태극(太極)이다. 태극의 원은 인민을 나타낸다. 중앙의 붉은색과 파란색은 태극의 양의인 음과 양을 뜻한다. 태극문양은 우주의 혼성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를 상징한다. 태극기의 '태극'과 '선천사정괘(先天四正卦)'는 진정 복희(伏羲)의 '선천팔괘(先天八卦)'사상을 반영한 것이고, 한민족의 우주와 인생에 관한 핵심적인 사상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태극기의 역리(易理)와 소옹(邵雍, 1011~1077)의 선천역학을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가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혀줄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동안 태극기와 관련하여 연구한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태극기에 관한 연구성과 가운데 현저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있다. 먼저 태극기를 『주역』과 연관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다. 여기에서는 북송시대 邵雍의 「복희팔괘방위도」가 明代에 이르러 「古太極圖」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조선 말 변형되어 '태극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복희팔괘방위도」는 「복희팔괘차서도」에서 배열된 팔괘를 『주역』 「說卦傳」의 '天地定位'의 한 문장을 근거로 하여 여덟 방위에 배열시킨 그림이다. 이 가운데 건곤감리를 네 간방에 배치하여 그린 것이 태극기이다.[1)]

다음으로 박영효가 사용한 태극기의 유래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8년 영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된 박영효「태극기」사본과,『사화기략(使和記略)』의 기록, 당시 일본「시사신보(時事新報)」에 실린 태극기 그림, 그리고 유길준(兪吉濬)의 태극기 그림, 데니 태극기 등 기존의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하고, 여기에 태극기의 원리적 측면을 참고하여 박영효가 사용한 태극기의 원본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의 간섭과 왜곡작업이 지속되었음에도 우리의 태극기가 일관된 형태로 전승되어 왔음을 밝혔다. 즉, 박영효가 사용한 태극기는 고종의 지시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박영효가 일본에 가기 이전에 이 미 그 형태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정해진 형태란 다름 아닌 조미조약 때 사용된 태극기 'COREA Ensign'이었음을 밝혔다.[2] 박영효가 소옹의 선천역학에 근거해서 태극기를 도안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문헌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태극도형의 원형인 8괘의 도형이 복희로부터 소옹으로 이어지는 선천후천설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정괘의 방위 또한 소옹의 선천후천체용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박영효의 도안이 소옹의 이론과 일정부분 영향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태극기가 그려진 기원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곧 "1772년(영조48년) 세손 좌부빈객(左副賓客) 서명응(徐命膺)이 세손(정조正祖)의『주역(周易)』공부를 독려하기 위하여『계몽도설(啓蒙圖說)』을 지었는데, 여기에「선천변위후천도(先天變爲後天圖)」가 나온다. 이「선천변위후천도」를 보면 복희도의 팔괘를 바깥쪽에 문왕도의 팔괘를 안쪽에 배치하였다. 이 같은 '겹배열'에서 상하 중심축을 이루는 8괘가 곧 1775년 왕세자 책봉 때 사용한 태극 이괘도가 되었고, 1882년 박영효의 '건곤감리'의 네 괘를 채택한 태극사괘도의 태극기로 발전되었다"[3]고 언급하였다. 태극기는 한국의 국기로서 1883년 고종 20년 반포되고,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의 고시로 공포된

1) 朴文鉉, 2011「太極旗和周易」,『民族思想』5, 한국민족사상학회.

2) 辛源俸, 2011「박영효 태극기의 유래와 그 발견의 의미」,『東洋古典硏究』43, 동양고전학회, 259-260면.

3) 金源模, 2000「太極旗 起源문제를 중심으로」,「亞細亞文化硏究」4, 17면.

다. 이전에 여러 가지 태극도형이 존재했고, 괘의 배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4] 또한 사정괘의 방위는 영국인 제임스 선장의 제안, 즉 예술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소옹의 선천후천의 체용설, 즉 교역과 변역의 의미를 반영해서 확정된다.[5] 다음으로 태극기에 관한 연구 성과 가운데는 태극기를 독립운동을 행하는 것과 연관하여 연구한 논문도 제출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883년 만들어진 이후 태극기는 속조선의 군권, 부모형제, 조선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권상실 이후에는 국권회복, 독립의지, 애국심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나라를 잃었던 시기에는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태극기의 중요성이 커졌으므로 태극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였으나 이를 규정해 줄 국권이 없는 가운데 '논란(論難)'의 형태로 태극기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6]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태극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태극기가 한국의 전통적인 역사적 전승을 가지는 것의 측면에서 그리고 더 소급하여 『주역』에 연원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에 태극기를 실제로 제정할 때는 가운데 태극의 문양에 있어서는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한다면, 건곤감리(乾坤坎離)의 네 괘를 그리는 것에 있어서는 소옹의 영향을 주로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본 논문의 목표로서 태극기에 담긴 역학사상의 연원을 고찰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태극기에 내포되어 있는 역리를 조선시대 학자들이 주돈이의 태극도와 소옹의 선천도에 관심을 가졌던 내용과 함께 태극기가 만들어진 내력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태극기의 역리적 원리를 『주역』 「설괘전」과 주희의 역학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태극기의 역학원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소옹의 선천역학을 도와 수, 그리고 황극경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태극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태극기에 내포되어 있는 역학적 의의를 성찰하고자 한다.

---

4) 최정준, 2011 「음양론에 근거한 태극기의 비판적 고찰」, 『한국전통문화이론정립을 위한 음양오행적 해석』, 한국홍역학회, 33-36면.

5) 위의 책, 36-42면.

6) 尹善子, 2009 「독립운동과 태극기」,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106-107면.

2. 조선조의 태극사상과 「선천도」에 관한 관심

태극기의 역학사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극기의 원리가 되는 태극 사상이 조선조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태극도」는 조선 초기부터 등장한다. 조선 초기 권근(權近1352~1409)은 익주(益州)) 유배시절에 『입학도설』을 지었는데 이 가운데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는 문자와 도형을 결합하여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흑백으로 구분하여 태극과 음양을 나타냈는데, 태극기의 태극문양과는 거리가 있으나 태극사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입학도설』에서 「복희선천팔괘도」와 「문왕후천방위도」를 비교하여 도시하였다. 그는 「복희선천팔괘도」의 특징을 천지의 정위를 드러낸 것으로, 「문왕후천방위도」를 조화가 유행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선천은 천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그것을 열었으며, 후천은 천리가 이미 드러나서 성인이 그것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7)]

권근을 이어서 소옹의 선천 학설을 우주본체론의 차원에서 보다 철학적으로 전개한 학자는 서경덕이었다. 그는 '선천' 개념을 '태허'와 결합하여 그 특징을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천은 형체가 없이 고요한 태허이며, 이것은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하다.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텅 비어 있으며 기의 근원이다. 이처럼 서경덕은 선천을 우주의 본원으로 언급하면서 이러한 경지는 주돈이, 장횡거張橫渠도 언급하지 못하고, 소옹도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여 그의 독창적인 견해임을 강조하였다.[8)]

서경덕 이후 조선조에는 도서학파라 불릴 정도로 도표를 가지고 철학사상을 설

---

7) 權近, 『入學圖說』 30-31면.

8) "太虛湛然無形, 號之曰先天. 其大無外, 其先無始, 其來不可究, 其湛然虛靜, 氣之原也. 彌漫無外之遠, 逼塞充實, 無有空闕, 無一毫可容間也. 然挹之則虛, 執之則無. 然而却實, 不得謂之無也.… 千聖不下語, 周張引不發, 邵翁不得下一字處也."(徐敬德, 『花潭集』 2-11, 「原理氣」)

명하는 조류가 있었다. 이황(李滉)의 「성학십도(聖學十圖)」, 조식(曺植)의 「학기류편(學記類編)」, 장현광(張顯光)의 「역학도설易學圖說」 등은 이런 조류를 대표하는 그림들이다. 이 가운데 「성학십도(聖學十圖)」 제1도는 주돈이의 태극도를 인용하여 태극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식의 『학기류편』에서는 「삼재일태극도(三才一太極圖)」와 「태극도여통서표리도(太極圖與通書表裏圖)」을 그려 우주의 본체와 그 생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후 장현광은 『역학도설』 중에 「태극장소지도(太極長消之圖)」를 그렸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태극사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린 도표라는 데서 의미를 가진다.[9] 여기에서 조선시대 초기와 전기의 학자들은 소옹의 「선천도」에 관심을 가지기에 앞서, 주돈이의 「태극도」를 표준으로 삼아 태극 사상을 전개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소옹이 선천역에 관한 관심 가운데는 그가 언급한 '획전역畫前易'에 대하여 주목한 경우도 있다. 이이는 소옹이 "누가 팔괘를 그리기 이전에 역이 있다는 것을 믿겠는가만, 팔괘의 획을 그리기 이전이라 하여 어찌 천지음양이 없겠는가?"라고 하여 정호程顥가 『격양집擊壤集』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목하였다. 이이는 이것을 이어서 「획전유역부畫前有易賦」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는 천지자연과 팔괘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고 있다. 곧 팔괘에는 천지자연과 새, 짐승의 모습이 모두 들어 있다고 보았다. 이이는 소옹의 선천역학을 중심으로 하여 제기한 수학(數學)은 술수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것으로 경세(經世)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10]

이후 조선 중후기에 이르면서는 이익과 서명응이 소옹의 선천 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이익은 소옹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으나 그 논리적 설명에 있어서 미미했던 선천도 팔괘방위의 설정근거 에 대하여 「하도」의 기수(奇數) 및

9) 趙仁秀, 2004 「太極紋樣의 歷史와 太極圖의 형성에 대하여」, 『동아시아문화와 예술』 1, 頁 50.

10) 郭信煥, 2011 「율곡 이이의 소강절역학 이해-「畫前有易賦」와 「空中樓閣賦」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65집, 157면.(『擊壤集』, "邵堯夫曰誰信畫前元有易, 畫之前豈無天地陰陽乎?")

우수(偶數)가 갖는 다소(多少)의 순서를 중심으로서 매우 설득력 있는 해명을 시도하였다.[11] 이서서 서명응은 「하도」와 소옹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기초로 그의 선천 사상을 나타낸 책으로 『선천사연先天四演』을 저술하였다. 여기에서 서명응은 논리전개의 틀로 「하도」를 이용하였고, 「하도」로 다양한 이론을 나타냈다. 이 중에 소자(邵子)의 「복희육십사괘방원도」에서 내도(內圖)인 방도가 정사각형인데 그는 마름모로 바꾸면서 이것이 소자(邵子)의 뜻이라고 주장하였다.[12]

반면 후기에 이르러 조선은 1876년 개항이후 국기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임금의 어기(御旗)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때 태극문양과 팔괘를 그려 넣었다. 한편 국기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체결 시에 이미 태극팔괘가가 사용되었고, 그 후 1882년 8월 수신사의 일본 사행에서도 같은 태극기가 사용되었다. 이 때 영국인 선장의 자문을 받아 이것을 단순화한 태극사괘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태극기에서 건곤감리를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이태진(李泰鎭)은 "선천팔괘와 후천팔괘 사이의 관계를 함께 표현한 『계몽도설啓蒙圖說』의 서명응의 「선천변위후천도」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고종이 정조正祖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13]고 보았다.

3. 한국 태극기의 역리연구

윗 장에서는 조선 시대에 있어서 태극 사상의 전개와 선천도에 관한 관심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에는 태극 사상은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심화되면서 태극이기론으로 융합되었으며. 「선천도」와 선천 사상에 관해서도 상수역학자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제 한국 태극기의 역학적 원리를 좀 더 근원

11) 金麟哲, 2007 「星湖 李瀷의 易學觀」, 『泰東古典硏究』 24집, 19면.

12) 조희영, 2010 「복희64개방원도 개작에 대한 검토-『황극경세서』와 『선천사연(先天四演)』을 중심으로」, 『율곡사상연구』21집, 491면.

13) 趙仁秀, 앞의 논문, 頁51～53.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역』에서 연관된 구절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역』의 문구를 통해서 볼 때, 태극기의 구성 원리는 『주역』, 「계사상전-5장」,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와 『주역』, 「계사상전-11장」, "그래서 역에는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는다. 팔괘는 길흉을 결정하고, 길흉은 커다란 공업을 낳는다"는 구절을 근거로 한다.[14] 주희(朱熹, 1130~1200)는 『주역본의·도목』, 「복희팔괘차서도」에서 『주역』, 「계사상전-11장」과 「설괘전-3장」[15]을 인용하였고, 아울러 소옹이 '가일배법(加一倍法)'의 도식을 설명하는 글을 기록하였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소자(邵子)가 '하나가 나누어져 둘이 되고 둘이 나누어져 넷이 되고 넷이 나누어져 여덟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 소자(邵子)가 '건(乾)이 1이고 태(兌)가 2이고 이(離)가 3이고 진(震)이 4이고 손(巽)이 5이고 감(坎)이 6이고 간(艮)이 7이고 곤(坤)이 8이다. 건(乾)으로부터 곤(坤)까지는 모두 아직 생기지 않은 괘(卦)를 얻은 것이니, 사시(四時)를 역추(逆推)하는 비유와 같다. 뒤의 64괘(卦)의 차서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16]

이로써 태극사상은 『주역』, 「계사상전」에 연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극선천도식의 생성은 비록 고대 복희에 가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송대 유학자 소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의 역도서학(易圖書學)의 본조는 소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자면, 주희가 『주역본의·도목』, 「복희팔괘방위도」에서 『설괘전-3장』,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산과 연못이 기운을 통하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충돌하고 물과 바람이 서로 해치지 않으며,

---

14) "是故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주역』「계사전」). 본문에서 인용한 『周易』의 문구는 모두 朱熹, 『周易本義』, 臺北: 世界書局, 1988年 11月 10版과 程頤(1033~1107), 『易程傳』 합간판본을 근거로 한다.

15) 朱熹, 『周易本義』, 70면 참조.

16) "邵子曰: '一分爲二, 二分爲四, 四分爲八也.' … 邵子曰: '乾一, 兌二, 離三, 震四, 巽五, 坎六, 艮七, 坤八. 自乾至坤, 皆得未生之卦, 若逆推四時之比也, 後六十四卦次序倣此.'"(朱熹, 『周易本義』, 卷前圖, 7면)

팔괘가 서로 중첩된다. 지난 것을 헤아리는 것은 순順이 되고, 올 것을 헤아리는 것은 역逆이 된다[17]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면서 소옹이 선천팔괘도식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글을 기록한 것이다.

> 소자(邵子)는 '건(乾)은 남이고 곤(坤)은 북이며 이(離)는 동이고 감(坎)은 서이며 진(震)은 동북이고 태(兌)는 동남이며 손(巽)은 서남이고 간(艮)은 서북이니, 진(震)으로부터 건(乾)에 이르기까지는 순(順)이 되고, 손(巽)으로부터 곤(坤)에 이르기까지는 역(逆)이 된다. 뒤의 64괘(卦)의 방위도 이와 같다'라고 하였다.[18]

또한 주희는『설괘전-3장』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인다.

> 소자(邵子)가 '이는 복희 팔괘의 자리이니, 건(乾)은 남쪽에 있고 곤(坤)은 북쪽에 있으며, 이(離)는 동쪽에 있고 감(坎)은 서쪽에 있으며, 태(兌)는 동남쪽에 거하고 진(震)은 동북쪽에 거하며, 손(巽)은 서남쪽에 거하고 간(艮)은 서북쪽에 거하였다. 이에 팔괘가 서로 사귀어 육십사괘를 이루었으니, 이른바 선천(先天)의 학(學)이라는 것이다. 진(震)에서 시작하여 이(離)·태(兌)를 지나 건(乾)에 이름은 이미 생겨난 괘를 세는 것이요, 손(巽)으로부터 감(坎)・간(艮)을 지나 곤(坤)에 이름은 아직 생기지 않은 괘를 미루는 것이다'라고 하였다.[19]

주희는 주석에서 '복희팔괘지위(伏羲八卦之位)'가 바로 '선천지학(先天之學)'일뿐 아니라 '이미 생긴 괘를 헤아리는 것[數已生之卦]'이면서 '아직 생기지 않은 괘를 헤아리는 것[推未生之卦]'인 것 또한 모두 소옹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태극기의 연원을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 주희는 마침내『복희육십사괘차서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7)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주역』「설괘전」3장).

18) "'邵子曰: 乾南, 坤北, 離東, 坎西, 震東北, 兌東南, 巽西南, 艮西北, 自震至乾, 爲順, 自巽至坤, 爲逆. 後六十四卦方位倣此.'"(위의 책, 같은 부분)

19) "'邵子曰: 此伏羲八卦之位. 乾南坤北, 離東坎西, 兌居東南, 震居東北, 巽居西南, 艮居西北. 於是, 八卦相交, 而成六十四卦, 所謂先天之學也. 起震而歷離兌, 以至於乾, 數已生之卦也, 自巽而歷坎艮, 以至於坤, 推未生之卦也.'"(위의 책, 70면)

만약 효(爻)마다 점점 생겨나면 소자(邵子)의 이른바 '8이 나뉘어 16이 되고 16이 나뉘어 32가 되고 32가 나뉘어 64가 되었다'는 것이니, 더욱 법(法)과 상(象)의 자연한 묘리(妙理)를 볼 수 있다.[20]

주희가 일컬은 '자연스러운 법상의 신묘함을 더욱 보게 된다[尤見法象自然之妙]'는 말은 『주역』의 핵심이 담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주희는 『주역본의·주역상경』, 「건: 원형이정」 아래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6획은 복희가 그은 괘(卦)이다. 일(一)은 기수(奇數)[홀수]이니 양(陽)의 수(數)이고 건(乾)은 건(健)[굳셈]이니 양(陽)의 성질이다. … 복희가 우러러 천문(天文)을 보고 굽어 지리(地理)를 살펴서 음(陰)과 양(陽)에 기수(奇數)와 우수(偶數)[짝수]가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한 기(奇)를 그어 양(陽)을 상징하고 한 우(耦)를 그어 음(陰)을 상징하였으며, 한 음(陰)과 한 양(陽)이 각각 한 음(陰)과 한 양(陽)을 낳는 상(象)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배(倍)로 세 번 그어 팔괘(八卦)를 이루었다.[21]

이어서 주희는 「복희육십사괘방위도」 아래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희의 네 가지 도(圖)는 그 학설이 모두 소씨(邵氏)에게서 나왔으니, 소씨는 이지재(李之才) 정지(挺之)에게서 얻었고 정지(挺之)는 목수(穆脩) 백장(伯長)에게서 얻었고 백장(伯長)은 화산(華山) 희이선생(希夷先生) 진단(陳摶) 도남(圖南)에게서 얻었으니, 이른바 선천학(先天學)이라는 것이다.[22]

주희가 "복희의 네 가지 도는 그 설이 모두 소씨에게서 나왔다[伏羲四圖, 其說

---

20) "若逐爻漸生, 則邵子所謂'八分爲十六, 十六分爲三十二, 三十二分爲六十四'者, 尤見法象自然之妙也."(위의 책, 7면)

21) "六畫者, 伏羲所畫之卦也. 一者, 奇也, 陽之數也; 乾者, 健也, 陽之性也. … 伏羲仰觀俯察, 見陰陽有奇耦之數, 故畫一奇以象陽, 畫一耦以象陰; 見一陰一陽有各生一陰一陽之象, 故自下而上, 再倍而三, 以成八卦."(앞의 책, 1면)

22) "伏羲四圖, 其說皆出於邵氏, 蓋邵氏得之李之才挺之, 挺之得之穆脩伯長, 伯長得之華山希夷先生陳摶圖南者, 所謂先天之學也."(위의 책, p.8)

皆出邵氏]"라고 말한 것에서 소씨는 바로 소옹임이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소옹의 도서학(圖書學)의 전승관계도 밝혀진다. 진단(圖南, 希夷先生, 872-989) → 穆修(伯長, 979-1032) → 李之才(挺之, ?-1045) → 邵雍(堯夫, 百源先生, 1012-1077). 주희는 『주역본의·도』에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 역(易)의 도식 아홉 가지이다.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역이 있고 복희의 역이 있고 문왕(文王)·주공(周公)의 역이 있고 공자(孔子)의 역이 있으니, 복희 이전에는 모두 문자가 없고 다만 획을 그린 것만 있어서 가장 깊이 완미해야 하니 이렇게 하여야 역을 지은 본원의 정미(精微)한 뜻을 볼 수 있으며, 문왕 이후에는 비로소 문자가 있었으니, 곧 지금의 『주역』이다. 그러나 읽는 자가 또한 각기 본문을 가지고 이리저리 연구함해야 할 것이요, 곧 공자의 말씀을 문왕의 말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23]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소옹은 '복희선천도서지학(伏羲先天圖書之學)'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소옹의 이론은 『역전』의 「계사전」과 「설괘전」에 근거하고 있다. 『역전』은 공자에 의해 지어진 것이다. 즉, 주희가 말한 공자의 『역』이다. 공자의 『역전』은 또한 문왕과 주공의 『역』을 연원으로 삼고 있다. 즉, 공자의 『역전』은 『주역』의 괘사와 효사를 근거로 한다. 문왕과 주공의 『역』은 복희의 『역』을 연원으로 삼는다. 복희의 『역』은 '천지자연의 역'을 밝혀낸 것이다. 『주역』의 의리는 성현들이 서로 전수한 것이고, 실제 모두 천지의 '본원하고 정미한 뜻'을 체현한 것이다. 따라서 태극기의 근원은 주희가 서술한 소옹의 선천역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소옹의 선천 역학이 어떻게 태극기의 괘의 배치원리를 이루는 근원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3) "易之圖九. 有天地自然之易, 有伏羲之易, 有文王周公之易, 有孔子之易, 自伏羲以上, 皆无文字, 只有圖畫, 最宜深玩, 可見作易本原精微之意. 文王以下, 方有文字, 卽今之周易. 然讀者亦宜各就本文消息, 不可便以孔子之說爲文王之說也."(위의 책)

4. 소옹의 선천역학 연구와 약술

북송 때 역학이 흥성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학술, 문화, 사상, 사회의 각 계각층과 모두 관련되어있다. 고회민(高懷民, 1930～)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토론할 때, 화산의 도사 진단이 송나라가 건국된 후로부터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역학이 흥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단은 송나라의 여러 역학자들이 출연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24] 많은 역학의 전설이 진단과 관련되어있다. 가령 송나라의 역학 중 태극도,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유염(兪琰, 1253-1320)의 「64괘직도(64卦直圖)」 또한 진단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전설은 진위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로부터 진단이 역학자들 가운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은사(隱士)들이 도(圖)로써 사상을 드러내었고, 도(圖)가 역학의 발전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학은 본래 상(象)에 의거하여서 건립된 학문이다. 각 시대마다 상에 대해서 모두 상당히 중시하였지만, 그 표현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송명시대의 역학자들은 역도(易圖)를 제작하여서 『역』을 풀어내었다. 가령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 소옹의 선천역도, 주희의 괘변도(卦變圖), 왕부지(王夫之, 1619-1692)의 중괘도(重卦圖), 『道藏』 중에 있는 많은 역도가 그 예이다. 고회민 교수는 『先秦易學史』 중에서 복희씨를 역의 시대, 즉 천도사상(天道思想)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고 교수는 역의 시대에 대표적인 인물은 복희씨이고, 팔괘를 문헌에 기록된 유일한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고 교수는 『선진역학사』에서 팔괘의 획성(畫成), 취상(取象), 명칭(名稱)과 배

---

24) 高懷民, 2007.07 『宋元明易學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이외에 고 교수는 역학사의 중요한 저작들을 남겼다. ① 『先秦易學史』, 臺北, 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1975年 6月. ② 『兩漢易學史』, 臺北, 文津出版社, 1978年 11月 再版. ③ 『大易哲學論』, 臺北, 自行出版經鎖, 1988年 7月 再版. ④ 『邵子先天易哲學』, 臺北, 作者自印, 1997年 3月. ⑤ 『偉大的孕育-中國哲學在皇皇易道中成長發展』, 臺北, 作者自印, 1999年 2月. ⑥ 『易魂詩譚』, 臺北, 樂學書局, 2006年 3月 初版.

열방식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괘상(卦象)의 기원에 관해서, 고 교수는 복희씨의 '만물을 투철하게 관찰하고서 획을 긋는다'는 이론을 취하였다. 고 교수는, 음양은 결코 어떤 하나의 형상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령 음양은 산곡 구릉, 남녀생식기로부터 상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대해서 일리는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 잘못이 있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팔괘가 하나의 부호가 된 것은 그 안에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하나의 사물에서 상을 취하고서 합리적으로 각 괘의 획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고 교수에 의하면, 음과 양은 형이상의 사상을 대표하는 부호이고, 물체와 형상을 초월한 추상작용 혹은 운동에너지다.

고 교수는 또한 양과 음의 기원에 관한 진일보한 연구를 수행한다. 즉, 양의로부터 사상과 팔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만물의 운동을 관찰해서 현상의 평형을 나타내고 하나하나의 과정을 쫓아간다. 고 교수는 '以意逆志'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이는 복희가 괘를 그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한 것이다. 고 교수는 또한 복희시대에 이 같은 완정한 철학적 사고가 있을 수 없다는 관점에 관해서,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한다는 역사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문화, 예술과 철학 등 모든 영역에서 천재들이 출현하였고, 이 때문에 역사상 창조성을 갖춘 탁견은 시대의 조류 가운데 확립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후대에 가서야 비로소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복희의 획괘 이론을 가지고 순박한 고대에 이 같은 성숙한 철학사상이 출현할 수 없다고 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25)]

팔괘의 취상(取象)에 관해서, 고 교수는 '옛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을 사상의 근거로 삼는 데 힘쓴다'는 원칙을 채택해서 추단하였다. 즉, 천지(天地)・뢰풍(雷風)・수화(水火)・산택(山澤)마다 초상(初象)의 함의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괘가 갖고 있는 상(象)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의 말이지만, 복희가 괘를 그을 때에 이미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었다는 이론을 증명하려고 한

25) 高懷民, 1997.12「易象 '—'與'--'源於'蓋天'說之推思」,『國立政治大學哲學學報』, 第4期, 159-166면 참조.

것임을 엿볼 수 있다. 팔괘의 명칭에 관해서, 고 교수는 문자의 본의와 괘상의 상관관계로써, 그리고 갑골문·『십익』과 기타 문헌을 실례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괘상은 이미 후대의 문자가 구비한 명백한 뜻을 갖추고 있었고, 문자와 부호의 상호체계는 모두 괘상의 획성에 근원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팔괘의 배열방식에 관해서, 고 교수는 하나의 새로운 학설의 창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연산』, 『귀장』, 『주역』과 다르고, 괘상의 배열도 같지 않다. 한대(漢代) 맹희(孟喜)의 괘기(卦氣)·초연수(焦延壽)의 변점(變占)·경방(京房, 기원전77~37)의 팔궁(八宮)과 오번(吳翻, 164~233)의 괘변(卦變) 모두 각각 새로운 괘상의 배열방식이 있다. 복희의 팔괘배열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건(乾)·곤(坤)·진(震)·손(巽)·감(坎)·이(離)·간(艮)·태(兌)'이다. 두 번째는 소옹에 의해서 제시된 선천도설로서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이다. 고 교수가 생각하기에, 역대 역학자들은 자신이 만든 체계에 입각해서 새로운 배열방식을 발전시켜나갔기 때문에 복희의 팔괘배열방식에 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옹이 만든 복희의 팔괘배열방식에 관해서 시비를 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팔괘의 배열방식문제에 관해서, 고 교수는 「설괘전」을 근거로 그 가운데 세 가지 괘상의 배열방식이 있다고 주장한다. 1."天地定位"의 단락에 있는 팔괘의 배열방식은 복희로부터 문왕에 이르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帝出乎震"에서 말한 배열법은 전국시대중엽에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오행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3.주희의 『주역본의』의 분장에 의거한 제7, 8, 9, 10, 11장에 실린 배열법은 상으로써 분류하는 것이다. 건과 곤을 머리로 삼고, 천지를 부모와 부합시키고, 뢰풍수화산택을 자녀와 배치시키는 이론은 복희가 시집장가의 예를 제정하고 혼인의 도를 제창한 것과 서로 부합한다. 이는 복희의 서괘와 관련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 교수는 '乾一坤二震三巽四坎五離六艮七兌八'을 복희의 서괘라고 추정한다. 이는 곧 실제 소옹과 복희의 선천학이라고 주장한다.

고 교수의 단일 역학관련 인물의 연구 중 소옹이 차지하는 분량이 가장 많고 중요하다. 이 같은 점은 그의 저서인 『邵子先天易哲學』, 『宋元明易學史』와 단편논

문인 「邵雍的歷史哲學」, 「邵雍先天易論史述評」, 「邵雍先天易演天地之數」, 「從易學史的發展看邵雍的易學成就」 등등에서 보인다. 필자는 고 교수의 관점을 근거로 종합하고 귀납하여 몇 가지 점을 추가로 서술하고자 한다.

1) 도(圖)와 수(數)

고 교수는, 소옹의 역학과 전통 역학의 가장 큰 차이가 소옹은 문왕의 괘서와 경문에 의거하지 않고 허다한 『역』도(圖)와 수(數)에 나아가 추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송원학안』에 나열된 소옹의 『역』도는 모두 12종이다. 그 가운데 팔괘차서도(八卦次序圖), 팔괘방위도(八卦方位圖), 육십사괘차서(六十四卦次序), 육십사괘원도방위도(六十四卦圓圖方位圖), 방도사분사층도(方圖四分四層圖), 괘기도(卦氣圖) 등은 '선천괘위도(先天卦位圖)'라고 한다. 이는 소옹의 선천역학의 기본괘도이다. 그 밖의 6종은 '경세(經世)'라는 이름으로 위에 열거한 각 도의 경세변화를 설명한다. 채연(蔡淵, 1156~1236)의 『찬도지요(纂圖指要)』에 있는 세 종류의 도는 『송원학안』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는 소옹이 『역』도를 가지고서 드러낸 사상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소옹의 '수(數)'이론은 전통적 천지기우(天地奇偶)의 수・서점(筮占)의 수・하낙오행(河洛五行)의 수・역법(曆法)의 수를 받아들이고, 이로써 자신이 제시한 先天數의 원리를 합한다.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항목이 있다. 첫째, 팔괘의 수이다. 둘째, 원회운세(元會運世)의 수이다. 이는 연월일시의 측면에서 원회운세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고, 30년을 한 세대로 삼는 체계이다. 이 체계를 바탕으로 역사를 검토하고 시운을 추단한다. 셋째, 천지체용(天地體用)의 수이다.

2) 『황극경세』와 그 역학사상

이상과 관련된 『역』도와 논증과정 중에 사용된 원문은 매우 많다. 상세하게 다루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이다. 여기서는 고 교수가 서술한 원문을 참고하여 중용한 부분만 선택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소옹은 '원회운세'로써 역사를 고찰하는데,

일갑일원(日甲一元)·통십이회(統十二會)·삼백육십운(三百六十運)·사천삼백이십세(四千三百二十世)·십이만구천육백년(十二萬九千六百年)로 분류된다. '십이만구천육백년'의 '년'은 '원회운세연월일시'의 체계 중의 수이지 실생활의 '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탐구할 것은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역정의 대체'이지 결코 '몇 년 몇 월에 태어난 사람에게 있을 모종의 변화'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소옹의 '수' 또한 수목(數目)의 '수'가 아니라 중국철학전통 가운데 운수(運數) 혹은 명수(命數)의 '수'이다. 그 밖에 소옹의 "개물인중(開物寅中)"·"개물술중(開物戌中)"이론, 역사상 문화가 흥성한 시기에 관한 관점과 '삼황(三皇)·오제(五帝)·삼왕(三王)·오패(五伯)'이후로부터 정치 상황에 관한 분석은 고 교수의 독립된 논의가 있다. 소옹은 '수'로써 천지의 선천역수를 표명한다. 그 논의는 아래와 같다.

(1) '천지종시지수(天地終始之數)'는 『찬도지요』, 「경세천지종시지수도(經世天地終始之數圖)」에서 보인다. 이 도는 적어도 채연이 소옹의 뜻을 받들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2) '천지체용지수(天地體用之數)'는 『관물외편(觀物外篇)』과 「경세천지사상도(經世天地四象圖)」에 관련된 논의가 있다.
(3) '천지원방지수(天地圓方之數)'에서 원의 수는 '하늘이 운행하는 것'을 나타내고, 방의 수는 '땅이 화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원의 수는 '시(時)'와 가깝고, 방의 수는 '위(位)'와 가깝다.
(4) '천지생물지수(天地生物之數)'는 만물변화의 측면을 드러낸다. 소옹은 성음에 관해 묘사하고, 성음학의 지식에 의거하여 그의 경세사상이론에 배합시켜 '경세성음도(經世聲音圖)'를 완성하였다. 이 도는 또한 「경세사상체용지수도(經世四象體用之數圖)」 뒷면의 「정성정음표(正聲正音表)」에서 보인다.

소옹은 또한 만 가지 변화는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긴다고 주장한다. 『관물외편』 중에, "선천의 학은 심법(心法)이다. 그러므로 도(圖)는 모두 중심으로부터 일어나니, 만 가지 변화와 만 가지 일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도는 비록 문자가 없지만, 나는 종일 말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천지만물의 이치는 다 그 가운데 있다."[26] '천지의 마음은 만물을 낳는 근본이다'는 「선천방도(先天方圖)」의 64

괘배열도를 따른 것이고, 또한 소옹이 '만 가지 변화가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개념을 처리하는 방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소옹의 선천역의 『역』도와 『역』수는 우주의 자연법칙을 의거하고 있으며, 역법의 연월・일시・기후・절기 등과 관련된다. 후세 사람들은 이 부분을 '괘기(卦氣)'라고 한다. 고 교수는 맹희가 수창한 괘기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선천역괘기(先天易卦氣)'라고 명명한다. '선천역괘기'는 건・곤・감・이를 네 가지의 정괘로 삼고 괘기도의 상하좌우의 자리를 나누고 그 나머지 60괘를 통솔한다. 네 가지 정괘의 24효는 한해의 24절기로 나뉜다. 이 네 가지의 괘는 또한 '윤괘(閏卦)'라고 한다. 24효를 매해 나누어 받아도 여전히 소수가 남는다. 5와 1/4일이 남는 것이 한나라의 『역』에는 큰 문제였다. 재이(災異)를 점친다면 반드시 일기가 정확해야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옹의 목적은 재이를 점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치윤(置閏)'의 문제는 비교적 느슨하였다. 이는 학술의 핵심이 다르기 때문이고, 학술사상에 대한 영향관계의 정도차이 때문이다.

3) 태극의 세 가지 원리

래지덕(來知德, 1525~1604)의 「태극원도기(太極圓圖記)」에는 '대대자수(對待者數)'・'유행자기(流行者氣)'・'주재자리(主宰者理)'라는 말이 있다. '대대(對待)'・'유행(流行)'이라는 말을 '수(數)'・'기(氣)'와 합하고, 위로는 '이(理)'의 지배가 있다. 래지덕은 "복희의 도는 『역』의 대대이고, 문왕의 도는 『역』의 유행이다"라고 말한다. 래지덕의 도는 '대대, 유행, 주재의 이를 겸하여서 그린 것이다.' 고 교수는 특히 래지덕이 말한 복희의 도는 소옹의 역학에서 지적한 복희의 선천팔괘와 육십사괘의 도이고, 문왕의 도는 소옹의 역학에서 지적한 문왕의 후천팔괘도라고 주장한다. '주재자로서 이'는 형이상의 본질적 존재이고, 이는 천지와 인물이 받은 성이고, 인생 중의 덕업과 학술 또한 이의 작용이 된다. 이 같은 관점은 소옹의 "괘를

26) "先天之學, 心法也. 故圖皆從中起, 萬化萬事生乎心也. 圖雖無文, 吾終日言而未嘗離乎是, 蓋天地萬物之理盡在其中矣."(『관물외편』)

그리기 전에 역이 있다"는 말을 계승한 것이다. '대대자수(對待者數)'는 기수우수의 대대차원에서 수를 말한 것이다. '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도」를 중시하고, 복희가 「하도」를 본받아 괘를 그었다는 이론을 믿는 것이다. '유행자기(流行者氣)'는, 고 교수가 역학의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기의 유행을 벗어나서 기수우수의 대대를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수우수의 대대를 벗어나서 음양의 유행을 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수의 대대와 기의 유행은 '이'라는 본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질임을 알 수 있다. 래지덕이 말한 '유행자기(流行者氣)'는 한나라의 역학 중 기의 운용이 점점 보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장재(張載, 1020~1077)와 주희로 이어지는 자연학술의 변화와 발전이다. 래지덕이 문왕의 역은 주로 '유행자기(流行者氣)'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소옹의 「문왕팔괘방위도」를 문왕에 귀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고회민 교수의 연구에 의거하여 서술하는 가운데, 소옹·복희의 선천역학의 도서학이 태극기의 '태극'·'사정괘'와 긴밀한 관계에 있고, 그 연원이 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선천'과 '후천'이란 말은 앞서 『주역·건·구오·문언전』, "무릇 대인(大人)이란 천지(天地)와 그 덕(德)이 합하며, 일월(日月)과 그 밝음이 합하며, 사시(四時)와 그 질서가 합하며, 귀신(鬼神)과 그 길흉(吉凶)이 합하여,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으며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天時)를 받드나니, 하늘도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며, 귀신에게 있어서랴?"[27] 소옹은 『역』을 근거로 선천과 후천의 학을 세웠다. 그렇다면 도서학(圖書學)은 진단에 의해서 창시되

27)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朱熹, 『周易本義』, 4면)

었을 것이다. 진단이 『역용도(易龍圖)』를 만들고, 서문에서 "원래 용마가 도를 짊어진 것은 복희의 시대에 나왔고, 태고 적입니다. 지금 이미 합한 위(位)를 보존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의심스러운데, 하물며 합하지 않은 수를 진술하는 것에 있어서랴! 그렇다면 어떻게 알았습니까? 중니가 세 번 구괘(九卦)의 뜻을 진술한 것에 대해서 그 뜻을 탐구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28]라고 하였다. 학자들은 이 자서가 위작이라고 의심하고, 또한 그 문의가 애매모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또한 이 서문에 의거해서 도서역학의 대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진단의 학문은 거듭 전해져서 유목과 소옹에 이르러 번창하였다. 그러나 그 전수의 원류는 각 사람마다 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29]

태극기는 '음양태극'과 '복희선천사정괘-건・곤・이・감'을 주요한 토대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태극기는 복희선천팔괘 방위도에서 동서남북의 리괘, 감괘, 건괘, 곤괘를 동북, 서남, 동남, 서북 등 네 간방으로 그대로 틀어서 배치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복희 팔괘선천방위도의 사정괘(四正卦)를 간방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후천의 변화를 포함하는 의미를 충족시키고자 한 것으로 추론된다. 비록 근본적인 『역』의 의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상 소옹의 선천도설이 창설된 이후로부터 '返本開新'하는 『주역』의 가르침이 더욱더 풍부해졌다.

태극기가 소옹의 선천학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조선의 태조 이성계(李成桂, 1335-1408)는 한양을 도읍으로 정한 이후에 또한 『주역・건・문언전』의 원형이정이 인의예지의 사덕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後天四正', 즉 동남서북방의 성문을 만들었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동대문은 흥인지문(興仁之門)이고, 남대문은 숭례문(崇禮門)이고, 북대문은 이미 사라졌지만 사덕 중 '정(貞)'에 해당하며 홍지문(弘智門)이고, 서대문은 사덕 중 '이(利)'에 해당하며 돈의문(敦義門)이다. 도로공사로 사라졌지만, 여전히 길가에 돈의문의 흔적을 알려주는 비표가 있

28) "原夫龍馬負圖, 出於羲皇之代, 在太古之先. 今存已合之位, 猶或疑之. 況更陳其未合之數耶! 然則何以知之? 答曰: 於仲尼三陳九卦之義, 探其旨, 所以知之也."(高明, 1978.03 「易圖書學傳授考源」, 『高明文輯』 上册,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41면)

29) 위의 책, 141~144면 참조.

다. 그 밖에, 한나라의 오상-인의예지신 가운데 신과 배합시키기 위해서 또한 성내에 보신각(普信閣)을 세웠다. 오위・오행・오덕이 모두 상응한다.

대한민국의 태극기는 소옹의 '복희선천팔괘도위'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울의 사대문은 '문왕후천팔괘도위'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이는 모두 『주역・건・문언전』, 『계사전』, 『설괘전』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한국의 태극기는 『주역』과 소옹의 「선천팔괘도」의 역학적 방위 원리를 창의적으로 구현한 상징물로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인과 중국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체득하고 자세히 완미할 필요가 있다. 이 태극기의 원리로부터 『중용』의 "大德敦化"는 깊이 터득되고 온축될 것이다.

2011년은 소옹 탄신 1000주년이다. 필자는 특별히 '강절천세탄신기념(康節千歲誕辰紀念)'이라는 8글자를 모든 구절의 앞부분에 두고 칠언율시를 지음으로써 소옹의 학문을 전하고 그의 덕을 칭송하고자 한다.

편안하게 백 가지 원류가 되는 학문을 즐기니	康居安樂百源學
곧은 절조로 청초하게 사물의 생성을 관조하네,	節亮風淸觀物生
천년간 만나기 어려운 어진 철인 만나는 것은	千載難逢賢哲會
세월이 바뀌어도 고금이 같다네.	歲時易逝古今同
탁야에서 漁樵問答을 크게 감상하였고	誕欣涿野漁樵對
이천격양가를 기쁘게 노래하였네.	辰悅伊川擊壤行
삼재의 표준을 세워 세상 이치를 경륜하고	紀極三才經世理
우주를 圖示한 선후천을 밝히고자 하였네.	念圖宇宙後先明

논문투고일(2012. 4. 30), 심사일(2012. 5. 20), 게재확정일(2012. 6. 8)

參考文獻

權 近, 「入學圖說」
徐敬德, 1988 『花潭集』, 『韓國文集叢刊』 24卷, 民族文化推進會.
朱 熹, 1988.11 『周易本義』, 臺北: 世界書局, 10版(程頤『易程傳』 合刊).

高　明, 1978.03『高明文輯』,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高懷民, 2007.07『宋元明易學史』,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_____, 2006.03『易魂詩譚』, 臺北: 樂學書局, 初版.
_____, 1999.02『偉大的孕育-中國哲學在皇皇易道中成長發展』, 臺北: 作者自印.
_____, 1997.03『邵子先天易哲學』, 臺北: 作者自印.
_____, 1988.07『大易哲學論』, 臺北: 自行出版經銷, 再版.
_____, 1978.11『兩漢易學史』, 臺北, 文津出版社, 再版.
_____, 1975.06『先秦易學史』, 臺北, 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_____, 1997.12「易象'—'與'--'源於'蓋天'說之推思」,『國立政治大學哲學學報』第4期.
_____, 1994.05「從邵雍先天易卦氣看人類興衰」,『國立政治大學哲學學報』第1期.
_____, 1996.12「從易學史的發展看邵雍的易學成就」,『國立政治大學哲學學報』, 第3期.
郭信煥, 2011「율곡 이이의 소강절역학 이해-「畫前有易賦」와「空中樓閣賦」를 중심으로-」,『동양철학연구』65집.
金麟哲, 2008「星湖 李瀷의 易學觀」,『泰東古典硏究』24집.
趙仁秀, 2004「太極紋樣의 歷史와 太極圖의 형성에 대하여」,『동아시아문화와 예술』1.
朴文鉉, 2011「太極旗和周易」,『民族思想』5, 한국민족사상학회.
辛源俸, 2011「박영효 태극기의 유래와 그 발견의 의미」,『東洋古典硏究』43, 동양고전학회.
金源模, 2000「太極旗 起源문제를 중심으로」,「亞細亞文化硏究」4.
尹善子, 2009「독립운동과 태극기」,『역사학연구』35, 호남사학회.
조희영, 2010「복희64개방원도 개작에 대한 검토-『황극경세서』와『선천사연(先天四演)』을 중심으로」,『율곡사상연구』21집.
최정준, 2011「음양론에 근거한 태극기의 비판적 고찰」,『한국전통문화이론정립을 위한 음양오행적 해석』, 한국홍역학회.

中文摘要

韩国的太极旗与宋代儒学者邵雍之先天易学的比较研究

賴 貴 三(Lai, Kuei-San)

本文探討大韓民國國旗'太極旗'的創制歷史進程及其易學思想淵源. 太極旗旗底爲白色, 象徵韓國人民的純潔與對和平的熱愛, 中央以易學象徵宇宙與眞理的太極爲圓, 太極的圓代表人民, 太極的兩儀爲上紅下藍, 象徵著陽與陰, 太極圖象徵宇宙天地渾成, 以及單一民族構成的國家. 四角的乾坤離坎爲伏羲先天八卦的四正卦, 象徵著天地日月, 坎水與離火象徵著女與男・靜與動的融合與諧調, 都顯示出對稱・均衡・和諧・循環與穩定等原理, 也象徵著正義・富饒・生命力與智慧. 因此, 韓國國旗中太極與先天四正卦的符號概念, 眞實反映出易學'伏羲先天八卦'的思想影響, 代表著大韓民族對宇宙・人生的深刻思考. 因此, 本文初探韓國太極旗中的易理・宋儒邵雍伏羲先天易學, 試圖聯繫二者之間的思想淵源, 可謂關係密切, 其中義理蘊涵十分深刻.

關鍵詞: 太極旗, 先天八卦, 伏羲, 先天易學, 邵雍